

대학생활에서 이루어지는 교수-학생 상호작용에 관한 유형 분석 연구: 내러티브 분석 중심

이봉숙
세한대학교 간호학과

The Type and Dimension of a Faculty-Student Interaction: Narrative study focused

Bongsook Yih
Department of Nursing, Sehan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지도교수를 중심으로 한 학생상담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교수학생간 상호작용의 작동원리를 파악하고 유형화하고자 함이다. 이를 위해 질적연구방법 중 내러티브연구방법을 적용하여 교수학생간 상호작용 경험 속에 나타나고 있는 구조적 패턴과 기전을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참여자는 학과소속 지도교수로부터 년 2회 총 6회 이상 학생상담을 경험한 4학년 여학생 1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심층인터뷰와 현장노트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인터뷰 자료는 Burke(1945)가 내러티브 분석에서 사용한 행위주체, 행위동기, 행위결과를 중심축으로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최종 도출된 상호작용 유형은 주도적 상호작용, 피상적 상호작용, 보은적 상호작용이다. 주도적 상호작용 유형은 학생이 교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성취지향적인 자아성장의 일면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는 유형이다. 반면 피상적 상호작용 유형에서는 교수와의 교류를 통해 자아성장의 경험이 강하게 피력되지 않고 있는 특성이 있으며, 마지막 보은적 상호작용 유형은 정서지향적 측면을 중심으로 한 자아성장의 일면을 강하게 나타내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세가지 상호작용 유형을 통해 교수자와 학생 모두 서로 발전시킬 수 있는 모델이 무엇이며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 지도교수 중심 학생 상담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Abstract This study identified the types and dimensions of faculty-student interaction (FSI). A narrative methodology was applied within the qualitative research paradigm. Data was collected using individual in-depth interviews involving 10 students who had experiences of faculty-student interaction more than 6 times over the prior 6 semesters. Data was analyzed according to actors' perspectives, the motivation of actions, and actions toward goal achievement. Three major types of faculty-student interactions emerged from our analysis. First, the initiative interaction type reflects active characteristics of the narrator within FSI and is goal achievement-oriented. Second, the stereotyped interaction was characterized as a unified reaction to the FSI and not significantly related to self-development. Lastly, the reciprocal interaction reflected characteristics of narrators who had potential and flexibility for self-development in the circumstances involving support from professors.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faculty-student interaction does not represent the best way to support students for their successful school lives. Faculty needs professionalism and sensitivity for student teaching, and students must exhibit curiosity and activeness in developing their knowledge. Positive outcomes from the FSI will be expected in supportive school environments.

Keywords : Dimension, Faculty, Interaction, Student, Type, University

본 논문은 세한대학교 연구과제로 수행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Bongsook Yih(Sehan University)

email: yihb@sehan.ac.kr

Received August 31, 2020

Revised October 26, 2020

Accepted December 4, 2020

Published December 31, 2020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영위하고 있다는 것은 학업적 측면, 대인관계적 측면 그리고 개개인의 정신건강적 측면에서 자율성을 가지고 사회적 유대감을 형성하며 미래의 진로를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을 때를 의미한다[1-3]. 이러한 요건들이 충족되지 못했을 경우 학생들은 학교생활 부적응 등으로 학업을 포기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교육효과의 감소 뿐만 아니라 소속대학의 경쟁력 약화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로 인해 많은 대학에서는 교수학습법을 혁신하고 교수업적제도를 개선하여 학생과 교수간의 상호작용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을 돕고 걱정수준의 학업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4]. 이는 교수학생 간 상호작용이 학생들의 성공적 대학생활을 이끄는 구심점임을 암시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교수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은 다양한 인간 활동의 한 형태로 학문적인 교류 뿐만 아니라 사회적 교류까지 포함하고 있다[5]. 교수학생 상호작용이 수업과 관련된 교과활동 뿐만 아니라 동아리 활동을 포함한 수업외 활동까지를 그 범위로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대학생활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 중 교수와 학생이라는 두 주체를 학문성취적 측면에서 다루고 있는 연구들을 살펴보면, 교수가 학생의 성장과 발전에 관심을 기울일수록 학생의 학업참여도와 학업성취도는 높아질 뿐만 아니라 학습에 대한 열정과 몰입도, 학업만족도가 향상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6-8]. 특히 교수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신뢰도가 높을수록 학업능력은 향상되고 전반적인 대학생활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6-9].

교수학생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세부적 특성으로 성별적 측면에서는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활발한 상호작용을 하고 있으며, 학업준비도가 높은 학생일수록 상호작용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0-11]. 또한 활발한 상호작용을 경험한 학생들은 분석력과 종합적 사고력이 높고 스스로의 지적성장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2-13].

흥미로운 점으로 상호작용 빈도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방대학이 수도권대학 보다 교수학생간 교류가 더 빈번하며 대학의 명성이 높을수록 교수학생간 상호작용은 적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0,12]. 최근 몇 년간 진행된 국내 대학의 교수학습역량진단 현황을 살펴보면 국

내 4년제와 전문대학의 교수학생간 상호작용은 대부분 수업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상호작용 범위가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14-15]. 이러한 연구결과는 [10]의 연구결과를 뒷받침해 주는 것으로 이들의 연구에서는 교수학생 상호작용이 4점 척도 중 1.89점으로 보통 이하의 낮은 수준임을 보고하고 있다.

학문적 특성에 따라 상호작용 정도에 차이가 있음을 지적한 연구도 있는데, 예체능계열, 공학계열, 의학계열 등이 타계열학과보다 활발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짐을 보고하고 있으며, 대학의 특성 즉 소규모 비수도권 대학 또는 대인관계를 강조하는 대학일수록 상호작용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16]. 그러나 가장 최근 연구로 2019년 전국 4년제와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조사한 한국교육개발원보고[15]에 의하면 사립대학이며, 대규모 대학일수록 그리고 비수도권 대학일수록 교수학생 간 상호작용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계열별로는 사범계열 학생이 타계열 학생보다 상호작용이 활발한 반면 여학생이며, 저학년이고, 인문, 사회계열 학생일수록 상호작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15].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식공동체인 대학 교육환경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수학생 간 상호작용은 학업의 질, 개개인의 성장과 발전, 소속대학의 경쟁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또한 학문의 특성에 따라 상호작용의 발생 빈도에 일정부분 차이가 나타날 수 밖에 없다. 위의 연구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사범계열이나 의학계열 또는 보건계열과 같이 학문특성상 대상자(학생 또는 환자)와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요하는 직종의 학문은 타 계열에 비해 교수학생 간 상호작용의 중요성이 강조될 수 밖에 없다. 특히 최근 확연한 입학정원의 증가가 나타나고 있는 간호계열의 경우 2019년 전국 203개의 대학에서 20,033명의 간호학 전공 신입생을 모집하였으며 이는 2018년 대비 840명이 증원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17]. 특정계열 학과 신입정원 증가는 대학 평가지표(재학생 충원율과 취업률)에 따른 대학 별 정책과 무관하지 않으며 증원된 학생수 대비 학생지원 정책도 나날이 체계화 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많은 대학에서 시행하는 학기별 정규적인 학생상담 및 지도교수제는 학생지원의 대표적 예라 볼 수 있다. 그러나 학생 상담에 있어 제도적으로 마련된 만남의 횟수보다 '어떠한 만남이어야 하는가'란 만남의 질적차원에 따라 학생의 성공적인 대학생활지원이라는 제도적 취지에 따른 학생상담의 궁극적인 목적은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학생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학기별 특정 횟수

의 교수학생 상호작용 기회이지만 개인별 결과가 같을 수는 없다. 따라서 대학 교육환경 내 제도적으로 마련된 교수학생 상호작용이 학생의 학교생활 및 학습성과 성취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 상호작용 패턴을 알아보고 작용기전과 결과에 대한 연결고리를 파악하여 효과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 질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는 대학에서 제도적으로 시행되는 지도교수 중심의 학생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을 대상으로 교수학생 간 이루어지고 있는 상호작용 패턴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특히 교수학생 간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분석하여 상호작용의 두 주체인 교수와 학생이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성취해 가는 과정을 분석하여 유형화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교수학생 간 상호작용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야기 구성패턴과 기전을 파악해 보기 위해 내러티브 연구방법론을 적용하고자 한다. 내러티브 연구방법론은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행위주체, 행위동기, 행위목적 그리고 행위결과를 중심으로 이야기 구성방식과 패턴을 파악해 내는데 적합한 방법론이다[18-19]. 따라서 내러티브 연구방법론은 지도교수와 정규적인 상담을 경험한 학생들의 이야기 속에 나타난 상호작용의 발생기전과 작동원리를 파악하여 유형화 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방법론이라 본다.

2.1 연구참여자 선정 및 윤리적 고려

연구 참여자는 소속 학과의 교수로부터 년 2회 이상 총 6회 정규적으로 학생상담을 경험한 4학년 여학생 1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학년이 높을수록 그리고 여학생일수록 교수학생 간 상호작용이 저조하다는 선행 연구결과가 있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취약그룹에 속하는 위의 해당조건을 충족하는 학생을 주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연구참여자는 목적성 샘플링인 눈덩이식 연구참여자 선택 방법(snowball sampling)을 적용하였다[20]. 첫 번째 참여자는 A동아리 회장으로 많은 인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학생으로 연구자로부터 얻은 연구참여자 기준에 준한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고 두 번째 대상자를 연결하였다. 두 번째 참여자는 그 다음 참여자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참여자들의 언어로 연구전반에 대해 의사소통하며 연구자와 참여자들 간 신뢰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다[20]. 본 연구는 연구자 소속기관의 연구윤리위원회 승인(SH-IRB 2019-12)를 거쳐 진행되었다. 연구참여자는 연구에 자발적인 참여의사를 밝혔으며 연구목적과 익명성에 대한 정보를 연구개시 전에 제공해 줌으로써 비밀보장을 엄격히 지키고자 했다.

2.2 자료수집

본 연구는 2019년 3월부터 7월까지 심층면담 및 현장노트를 통해 자료수집이 이루어졌다. 인터뷰는 참여자들의 선호에 따라 휴게실 및 상담실에서 평균 1시간에서 2시간 진행되었다. 자료수집은 “교수님들과 상호작용 경험은 어떠하십니까?”란 연구질문을 중심축으로 교수와 만남이 이루어진 배경, 상호작용 지속을 위한 노력과 결과는 무엇이고, 좋았던 점, 바라는 점 등을 축진질문으로 사용함으로써 교수와 만남이라는 경험이 현재 시점에서 재구성되어 표출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경험관련 유사질문과 반복질문을 사용하여 자료의 신빙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21].

2.3 자료분석

필사된 인터뷰 자료 및 현장노트는 대화의 흐름에 따라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기 전단계인 작동요인과 배경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와, 상호작용 과정 중의 이야기, 그리고 상호작용 후의 변화 등으로 구분되었다. 이러한 단계별 이야기들은 어떠한 목적을 전제로 한 만남으로 묘사되고 있는지에 따라 재분류되었으며, 이를 목적에 따른 차원화로 분류시켰다. 이어서 각 차원별로 분류된 이야기 속에서 묘사되고 있는 행위주체자는 어떠한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으며 주된 행위자와 행위결과 그리고 결과 촉발 요인과의 관계성은 Burke[22]가 드라마를 통한 내러티브 분석에서 사용한 행위자, 행위동기, 행위목적 및 결과 등을 골격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학생과 교수라는 두 주체의 만남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과거 시점부터 현 시점까지 시간의 흐름별로 이야기 속 ‘나’의 변화 과정을 파악해 낼 수 있었다. 또한 행위자, 행위동기 행위결과를 포함하고 있는 이야기구성 틀을 통해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패턴을 찾아내고자 했다. 분석된 자료는 인문학을 전공한 전문가 1인으로부터 내러티브 분석요소인 이야기 주체, 행위동기, 행위결과 등의 적정성에 대한 피드백 과정을 거쳤으며, 질적간호연구자 2인으로

부터 유형 도출과정에 대한 타당성 검증 과정을 여러차례 거침으로써 연구결과에 대한 질 확보를 기하고자하였다[21].

3. 연구결과

대학생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수학생 상호작용을 지도교수 상담 경험을 토대로 차원별 그리고 차원에 따른 작동 원리별로 분류하였으며 이에 대한 결과는 Table1과 같다. 먼저, 어떠한 만남인가를 중심으로 **공식적 목적성 만남, 의례적 만남** 그리고 **비공식적 목적성 만남** 등 3가지로 차원화 하였다. 공식적 목적성 만남차원은 교수와 학생 두 주체 모두 만남과 관련된 일정과 목적에 대한 명확한 인지와 사전 준비가 이루어진 만남의 경우에 해당되며, 의례적 만남차원은 일정에 대해 숙지는 했으나 상호작용의 두 주체 간 만남을 위한 사전 준비성이 드러나지 않은 사례들로 구분하였다. 마지막, 비공식적 목적성 만남 차원은 만남의 일정과 목적에 대한 준비가 상호작용 두 주체 중 한 쪽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들에 초점을 두었다.

이어서 상호작용 요소에 따른 구분을 각 차원별 행위 주체, 행위동기, 행위결과 등으로 세분화 한 후 차원과 차원별 요소에 따라 진행된 결과물들이 내적성장이라는 결

구성취와 연결되는지 여부에 따라 **주도적 상호작용, 피상적 상호작용, 보은적 상호작용**으로 유형화 하였다. 주도적 상호작용은 '나'라는 행위주체가 상호작용하고 있는 두 주체(교수-학생) 모두에게 의미체로 각인되어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으며 자아성장이라는 결과와 연결되는 이야기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피상적 상호작용은 교수와 학생 모두 서로에게 의미체로 인식 되지 못하고 1인칭 '나'가 아닌 3인칭 '학생'으로 인지되어 이야기가 진행되는 구조를 보이는 경우에 해당된다.

마지막 보은적 상호작용은 만남의 시작은 3인칭 '학생'이었으나 만남의 결과는 1인칭 '나'로 마무리 되어 내적 자아성장이라는 결과와 만나게 되는 이야기 구조에 해당된다. 각 유형별 세부적 차원과 요소로 제시되고 있는 화자들의 이야기는 대표성을 띄는 부분들만 발췌하여 수록하고자 한다.

3.1 만남의 차원

3.1.1 공식적 목적성 만남

지도교수와 정규적 상담을 통한 만남은 대학생활 동안 모든 학생에게 공평하게 부여된 교수 학생 간 상호작용의 기회이다. 이야기 속 화자들은 공식적인 상담 일정에 의해 지도교수와 상담을 하게 되며 이 만남을 위해 상호작용의 두 주체인 화자(학생)-교수자 모두 사전준비가 이루어졌음을 제시하고 있는 사례들을 공식적 목적성 만남 차원으로 분류하였다. 화자는 교수자와 만남이 이루어지기 전 사전준비를 하는 행위를 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화자 자신이 필요한 질문을 준비하고 만남 그 자체에 대한 기대감을 토로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교수자에 대한 표현에서 자신에 대해 맞춤형정보를 성심을 다해 제공해주는 대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경우이다. 따라서 공식적 목적성 만남에서 나타나는 상호작용 과정은 “나를 알리기-나로 인식-나와 상호작용” 등 일련의 패턴을 보이고 있음이 파악되었다.

...지도교수님이 정해지고 나서 저는 엄청 많은 도움을 받은 것 같아요. 저는 지도교수님과 면담일이 정해지면 미리 질문하고 싶은 것들을 리스트로 뽑아서 정리해 갔어요. 내가 준비해서 갔기 때문에 교수님과 의사소통하는데 수월했고 교수님도 제가 원하는 답변을 빠르고 직접적으로 정확하게 어떻게 하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 많이 해 주시고 누구도 나한테 해주지 않은 이야기들을 저를 위해 많이 해주셨어요. 그러다보니 고민에 대해 이야

Table 1. Types and dimensions of Faculty-student Interaction(FSI)

Levels	Perspectives of actor	Motivation of action	Results of action	Types of Interaction
Purposeful	"Self" itself (Active self)	Tailored information from the professor (Meaningful student)	Self Development (Goal achievement oriented)	Initiative
Formal	"Self" among students (active and passive self)	Tailored information from the professor (Meaningful student)	Self Development (Emotional focused)	Reciprocal
	"A student" among students (Passive self)	General information from the professor (A student)	Not achieved self development	Stereotype
Unofficial purposeful	Indicated "self" (Passive self)	Tailored information from the professor (Meaningful student)	Self Development (Emotional focused)	Reciprocal

기하고 개인적인 이야기도 많이 하게 되는 편이에요...
(참여자 4)

위의 사례에서와 같이 공식적 목적성 만남 차원에서 화자는 '나'라는 존재를 알리기 위한 시그널을 상대방에게 보내고, 상대방에게 '나'라는 존재를 적극적으로 각인시켜 원하는 결과를 성취하는 과정을 담고 있다.

3.1.2 의례적 만남

두 번째 의례적 만남 차원은 예정되어 있는 교수와의 만남을 위해 화자가 어떠한 사전준비나 기대를 나타내지 않는 경우에 해당된다. 의례적인 만남 차원에서는 2가지 특이한 양상이 나타난다. 하나는 화자-교수자 모두 피상적 대화에 머물며 서로에 대한 기대나 개인적 세계에 대한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이다. 이야기 속 화자는 만남을 위한 기대감이 아닌 교수자에 대한 거리감을 주로 토로하고 있으며, 화자 맞춤형 면담이 아닌 타인 대타인이 일정한 간격을 사이에 두고 통상적인 이야기로 대화를 이어갔음을 암시하는 내용을 주로 포함하고 있는 사례에 해당된다.

...지도교수님이니까 저를 좀 더 걱정해주고 그러셨으면 좋겠는데 어디서냐, 가족관계가 어떻게 되냐, 어디에 취업하고 싶으냐 뭐 이런 다른 애들한테 모두 하는 그런 상투적인 질문들만 하니까 저는 별로 기대안하고 그냥 앉아 있다가 묻는 질문에만 대답하고 나오고 그랬던 것 같아요....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저에 대해 좀더 관심을 가지고 지난번에 니가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 뭐 그런 개인적인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아니니깐... (참여자 10)

화자는 면담 중 교수자가 자신 안에 숨어있는 '나'를 찾아 주길 원하고 감정적으로 내안에 들어와 주길 바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표현하고 있으나 이를 성취하기 위한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학생 스스로 자신의 기대와 현실사이의 괴리를 깨달은 후로는 일정 거리와 간격을 두고 면담에 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의례적 만남의 첫 번째 양상에서는 스승이란 고정관념, 말 안 해도 알아주겠지 라는 막연한 기대와 실제 사이의 괴리감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양상은 의례적 만남이었으나 교수자의 관심이 학생에게 의미 있게 전달되었을 경우 상호호혜적인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경우이다.

...교수님을 뵈는다는 것이 편한 일을 아니라 뭐라 해야 하나 조금 어렵죠. 면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싶고 또 그런그런 얘기 물으시겠지 뭐 그랬어요. 그런데 3학년 1학기 때 00교수님이 가시고 지도교수님이 바뀌셨어요. 기대하지 않았는데 제 개인적인 것을 물어주시고, 연후 때 집에 안가고 뭘했느냐며 걱정해 주시고 안부를 편하게 물어주시고 저에게 집중해주셨고...음 제 얘기를 경청해 주셨어요. (참여자 6)

위의 사례에서와 같이 의례적 만남에서는 만남의 시작은 화자에게 의미 없는 통상적인 만남이지만 만남과정 중에 생성되는 의미부여 여부에 따라 상호작용이 서로 다른 양상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의례적인 만남 차원에서는 “사전준비 없음-나를 모름-단순한 정보 교환” 등의 상호작용 패턴과 “사전준비 없음-나로 인식-나와 상호작용” 등 두가지 패턴이 공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1.3 비공식적 목적성 만남

비공식적 목적성 만남 차원은 위의 두가지 차원들처럼 계획된 만남이 아닌 화자가 알지 못하는 계획되지 않은 만남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호작용의 양상에 초점을 두었다. 기대감 없이 대화에 임한 화자와 화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면담에 임한 교수자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로 분류하였다. 화자는 인식하지 못하는 만남이었으나 교수자가 의도한 만남이 어떠한 결과로 연결될 수 있는지 다음 사례에서 잘 보여 주고 있다.

방학기간인데 지도교수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어떻게 지내고 있냐면서 영어공부는 잘 되어가고 있냐고 물으셨고 앞으로 이리이러한 병원에 취업을 하려면 지금 뭘 준비해야 된다고 저한테 필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는 제가 그 병원에 뭘까(합격할수있을까) 싶어 내려놓고 있었는데 교수님이 전화를 주시면서 걱정해 주시니까 아, 이르면 안되겠다 라는 생각에 자극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참여자 3)

제가 걸어가고 있는데 00교수님이 어디 가냐고 하시면서 저를 태워주셨어요. 아무리 지도교수님이지만 50명 이상 되는 애들을 다 어떻게 잘 알 수 있겠어요. 저는 별로 교수님께 잘 찾아가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를 그 닥 잘 아시지는 못할 거라 생각했는데 제가 (수업시간에)앞에 앉다가 왜 뒤로 가서 앉느냐, 기숙사 방은 00이랑 쓰고 있는데 어떡냐, 요즘 아빠하고 관계는 좀 나

아졌나면서 저한테 관심을 가져 주시는 거예요...저는 교수님이 저를 잘 알거라 생각 못했는데.. 너무 감사했어요....교수님 시간은 언제나 먼저 가서 앞줄에 앉으려고 해요. 어떨 때는 (아침에) 기숙사(에서) 눈 뜨자마자 먼저 강의실 와서 자리 맡아 놓고 다시 세수하러 기숙사 간격도 있어요. (참여자 2)

기대하지 않은 상황에서 경험하게 되는 개인적인 만족감은 그 강도가 더 깊이 각인되기 마련이다. 위에 제시된 사례들은 의도하지 않는 만남 또는 학생이 기대하지 않은 만남상황에서 두 대화 주체자 중 어느 한쪽이 준비되어 있다면 그 만남이 성공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좋은 사례로 볼 수 있다. 본 차원 속 교수자는 화자 맞춤형 대화를 준비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준비성은 만남에 대해 기대감이 없던 화자로 하여금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는 동기유발의 기회가 되고 있었다. 또한 교수자의 학생에 대한 관심 정도를 학생이 인지하는 순간 학생은 새롭게 성장하고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비공식적 목적성 만남 차원에서는 “사전준비 없음-타자에게 의미체로 존재하고 있는 나를 인식-나와 상호작용”의 패턴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2 상호작용 유형

차원별로 분류된 이야기들은 행위주체, 행위동기, 행위결과 등의 구성요소에 따라 분류되어 최종 세가지 상호작용 유형이 도출되었다: 주도적, 피상적, 보은적 상호작용. 각각의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2.1 주도적 상호작용

주도적 상호작용은 교수와 학생 간의 만남에서 학생이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능동적이며 적극적으로 교수와 상호작용을 유도해 가는 공식적 목적성 만남 차원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는 유형이다. 교수학생 간 상호작용은 일반적인 상호작용과 달리 대학이라는 특수 환경에서 발생하는 상호작용이다. 지식공동체라는 틀 속에서 교수와 학생 간 암묵적으로 내제된 권력자는 지식을 전달하는 교수자이다. 이러한 암묵적 권력구조 속에서 학생인 화자는 어떻게 주도적으로 교수자와 상호작용해 가고 있는지를 화자의 이야기 속 ‘나’라는 주체를 따라가 보았으며, 그 속에서 만남의 시작과 만남 후의 행태 그리고 결과가 모두 내적 자아성장을 향해 발전해 가고 있는 모습을 담고 있는 사례를 주도적 상호작용 사례로 보았다. 따라서 본 유형의 이야기 속 ‘나’는 만남을 준비하는 능동적

인 사전준비자이며, 만남 과정 중에는 적극적으로 ‘나’라는 존재를 표출하고 있으며, 그로인해 교수자에게 나의 존재를 확실히 각인 받았음을 느끼고 있는 이야기 구조이다.

...교수님이 저에 대해 관심이 있구나 하는 것은 이제...저에 대해 지난번 상담에서 나는 얘기들을 기억해 주시고 눈을 잘 마주쳐 주시면서 제가 궁금했던 것들에 대해 하나하나 챙겨주실 때 확실히 느끼는 것 같아요. 제 얘기에 집중해 주실 때 알잖아요. 아, 교수님이 나에게 정말 관심이 있으시구나 뭐 그런거요...저는 수업시간에 교수님 질문하시는 것에 대답을 잘해요. 반응을 잘보여요 제가. 과제도 뭐든 안빠지고 진짜 최선을 다해 해 가는 것 같아요. 그럼 교수님이 저한테 보내주시는 싸인을 알잖아요. 그냥 다른 애들은 교수님이 다 똑같이 대한다 하지만 저는 알아요. 교수님이 저한테 보내는 특별한 싸인이 있어요...부모님이 굉장히 좋아 하시죠 이번에 제가 성적장학금 받으니까요. 00병원에 꼭 합격해서 좋은 결과 보여 드리고 싶어요(성취지향적) (참여자1)

...수업시간에 교수님이 몇몇 애들 이름을 부르면서 찾아오라고 하셨어요. 들어보니 다 성적이 안 좋은 애들인 것 같아요. 저는 열심히 했는데 제가 그 애들과 같이 호명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찾아갔어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공부했는지, 제 공부법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지 다 여쭙봤어요. 교수님께서도 제가 전반적으로 내용을 이해하고 있지만 세밀한 부분을 많이 놓치고 있고 하나의 질병을 공부할 때는 머릿속에 우선 그 질환자의 몸풀로지에 대한 그림을 먼저 머릿속에 상상해보고 공부해보라고 조언해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성적이 안 나왔지만 '00이가 수업시간에 잘 듣고 열심히 공부하는 거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그 다음 성적요? 잘 나왔어요 ㅎㅎ(성취지향적) (참여자 4)

상호작용은 두 주체간의 적극적인 교류이다. 본 유형 속 상호작용은 화자가 능동적 행위주체자가 되어 일상생활 또는 성적 부진이라는 동기유발 사건에서 성적향상 즉 자아성장이라는 행위결과를 도출해 가는 전개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주도적 상호작용의 행위주체자는 능동적인 ‘나’이며 행위결과로 보여 지는 지속적인 자아성장은 행위동기요인인 교수자의 맞춤형 정보제공의 결과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주도적 상호작용에서는 화자가 학업향상의 목적을 향해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성취지향적 이야기 구조를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3.2.2 피상적 상호작용

피상적인 상호작용은 교수학생 간 나타날 수 있는 수직적 관계의 단면을 잘 보여주고 있는 사례로 볼 수 있다. 본 유형에서 화자인 학생은 교수자와의 면담상황에서 능동적, 수동적 모습 모두를 내포하고 있다. 화자가 능동적 행위주체자로 면담에 임할지라도 교수자가 학생의 기대치를 만족시켜 주지 못할 경우 화자의 내적성장은 나타나지 않고 있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면담에 소극적이며 수동적으로 임한 학생에게서 나타나는 결과와 동일했다. 따라서 교수학생 간 상호작용의 핵심은 지식적 측면에서 권력자인 교수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대변해 주는 유형이라 볼 수 있다.

기대를 많이 하죠. 교수님이 어떤 말씀을 해주실지 기대를 많이 했어요. 근데 교수님이 주신 정보는 제게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았어요. 좀 뒤떨어진 취업정보라고 해야 하나요. 뭐 좀 그랬어요. 졸업관련해서도 이것저것 인증기준 같은걸 여쭙보면 시원하게 대답을 못들었던거 같아요. 그러다 보니 친구들한테 더 많은 정보를 듣게 되고 차라리 궁금한게 있으면 친구들한테 물어봐요. (참여자 5)

교수님들이 바쁘시니까 맨날 시간에 쫓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면담하러 가면 뭐 특별하게 없으니까 그냥 뭐 상투적인 얘기만 하고 제가 또 성격이 내성적이라 성적 같은 거 물어볼까봐 겁도 나고 혼날 것도 같고, 음... 좀 그렇죠. (참여자 10)

본 유형의 상호작용에서 피상적 행위주체자는 화자인 '나'이지만 화자의 행동을 결정짓는 실제 주체자는 교수자로 볼 수 있다. 즉 교수자는 행위동기를 유발시키는 촉진자이며 행위결과의 방향제시자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행위유발자가 어떠한 방향으로 안내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목표점이 상이하게 다를 수 있다. 피상적 상호작용 유형에서 나타나고 있는 흥미 있는 점은 교수자에 대한 '상(像)'을 학생이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학생에게는 스승에 대한 상이 있다. 전문적 영역은 물론이거니와 말 안 해도 알아주시겠지 라는 정서적 영역이 포함되어 있다. 이 두가지 측면 중 어느 한 가지라도 충족된다면 상호작용은 학생에게 의미체로 남겠지만 두가지 모두 채워지지 않는다면 피상적인 만남에 불과 한 것이다. 따라서 본 유형에서는 학생의 성취지향적 일면과 정서지향적 일면 모두가 면담을 통해 채워지지 않고 있는 이야기 구조이다.

3.2.3 보은적 상호작용

보은적 상호작용은 피상적인 상호작용과 반대되는 사례로 볼 수 있다. 즉 상호작용 시작 시점에서 학생은 피상적 상호작용에서와 같이 능동적 또는 수동적 행위주체자로 위치해 있지만 행위동기 유발자인 교수자의 역할에 따라 내적성장이 일어나고 있는 사례이다. 기대감 없이 면담에 임한 수동적 행위자였으나 면담 진행과정에서 교수자의 관심과 격려로 인해 점차 적극적인 행위주체자로 발전해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화자는 교수자 중심의 이야기를 듣는 수동적인 학생(행위주체자)이었으나 교수자가 보여준 전문가로서의 모습에 신뢰감과 존경심이 유발되어 주도적 상호작용에서와 같은 내적 자아성장이 일어나게 되는 구조이다.

제가 우연히 교수님 연구실 앞을 지나는데 교수님이 차마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게 보였어요. 제가 인사를 드렸더니 들어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즈음에 아마도 신경계 수업이 진행되었던 때인거 같아요. 신경계가 원래 어렵잖아요. 제가 GABA와 도파민에 대해 우연찮게 여쭙보게됐어요. 교수님이 교재도 여러개 찾아주시고 또 논문도 같이 찾아주시면서 앞으로 문헌을 찾을 일이 있으면 이 사이트에서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시면서 정말 감동받게 됐어요. 바쁘신데도 저를 위해 그렇게 해주신 거잖아요. 그때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정서지향적). (참여자 8)

일단 교수님을 뵙는다는 것은 친구보다는 어렵잖아요. 어떨 때는 면담 일정이 미리 공지되지만 어떨 때는 교수님 시간 되실 때는 수업 끝나고 날 때나, 복도에서 만났을 때 즉흥적으로 부르시기도 하시잖아요. 교수님은 차가워 보이시는 인상이라서 막 다가서기가 어려운데 저를 맞아주시는 때는 정말 저를 반기는 표정이세요. 그리고 교수님 개인적 이야기, 학창시절 이야기도 해주세요. 그럴 때면 아 저도 교수님처럼 멋진 전문 여성이 되어야겠다. 뭐 그런 각오가 생기게 되요(정서지향적). (참여자 6)

본 유형에서 화자는 교수자에게 의미 있는 학생 즉 '나'라는 의미체로 각인 받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음이 표출되고 있다. 많은 학생 중의 학생이 아닌 학생 중의 '나'인 것이다. 인정받고 싶은 대상에게 의미 있는 존재로 인식되었을 때 인간은 발전하고자 하는 동기부여가 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보은적 상호작용 유형은 화자가 주도적으로 사전 만남을 준비하는 능동적인 준비자는 아니지만 결과는 교수자의 역할에 따라 학생이 발전적으로 변화하

고 있는 내용을 담은 정서지향적인 이야기 구조라고 볼 수 있다.

4. 논의

상호작용은 두 주체의 만남이며, 만남의 과정은 상호 호혜적인 수평관계일 때 긍정적 결과를 초래 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교수학생 간 상호작용은 지식공동체인 대학이라는 물리적 공간속에서 발생하는 인간 상호작용이다. 지식의 습득 및 공유차원에서 분명 교수와 학생은 절대적인 수평관계일 수 만은 없다. 이러한 습은 권력구조 속에서 학생은 교수자와 어떻게 상호작용 하면서 목적을 성취해 가고 있는지 만남의 차원과 유형을 세가지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대학내 지도교수제를 통해 공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남을 기본 전제로 모든 이야기는 시작된다. 주도적 상호작용 유형은 학생이 주체적으로 만남을 위한 사전준비를 하고, 교수자에게 의미 있는 학생으로 각인되며 내적 자아성장을 위한 발판이 마련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전체적인 이야기는 사전준비자-의미체로 존재-목적성취(성취지향)의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본 유형은 상호호혜적인 만남의 대표적인 예라 볼 수 있으며 대학이라는 공간에서 성공적인 학업 수행 및 대학생활 적응을 위해 기대되는 상호작용의 순기능적 예이다. 핵심은 교수자와 학생 모두 능동적 행위자로 교수자로서의 역할과 학생으로서의 역할에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수는 전문성과 감수성을 발휘하여 학생지도를 해야 하며 학생은 앞에 대한 적극성과 주도성이 내제되어 있어야 발생하는 상호작용 유형인 것이다. 앞에 대한 호기심은 자아성장과 발전의 단초가 되며 학생으로서 가지게 되는 힘의 원천인 것이다[23]. 이로써 상호작용을 위한 두 주제간 힘의 균형이 유지되게 되는 것이며 서로가 원하는 목적 달성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본 유형은 기존의 교수학생 간 상호작용의 연구에서 보여준 순기능적 결과인 교수의 학생에 대한 관심도가 학생의 학업 성취 및 몰입도를 증가시킨다는 결과를 지지해 주는 본보기적 예로 볼 수 있다[6-9].

두 번째 피상적 상호작용 유형은 교수자로서 또는 학생으로서 한번쯤 고민해 봐야하는 일면을 제시해 주고 있다. 학생면담이 교수자로서의 의무인지 또는 일상의 업무인지 자문해 봐야한다. 교수는 전문가적 측면과 정서적 측면 모두에서 학생에게 어떠한 존재로 인식되어지고 있는지 자문해 보아야 하며, 학생 또한 교수와의 만남을

훈육의 차원으로 인지하는지 아니면 성장을 위한 기회로 인지하고 있는지 반추해 볼 필요가 있다. 때론 교수자와 학생 모두 내제된 권력자와 내제된 약자로 스스로를 위치시키고 상호작용을 시작하는 것이 아닌지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 고착된 사고는 유연성 및 행위주도성을 저해하기 마련이다[24]. 교수자와 학생 모두 서로에게 주어진 상호작용의 기회를 위해 얼마나 준비하고 그 기회에 임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피상적 상호작용 유형에서는 학생의 내적성장을 위한 성취적 측면이나 정서적 만족감 등 어느 것도 충족되지 못한 만남이 그려지고 있다. 따라서 본 유형에서는 대학내 제도적으로 마련된 학생상담제도가 충분히 순기능을 할 수 있도록 환경적, 물리적 여건이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교수학생 상호작용의 순기능은 쉽게 가늠 가능하지만 아는 것과 아는 것을 행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 따라서 교수자와 학생 모두에게 동기부여가 되는 교수학생 간 만남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 보은적 상호작용 유형은 스승과 제자 사이에 암묵적인 수평적 또는 수직적 권력관계가 성립된다 하더라도 지식적 측면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주체가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상이하게 다를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지식 습득자인 학생은 모두 발전하고자하는 욕구와 발전가능성이 내제된 존재라는 것이며, 누구로부터 어떠한 동기부여를 받느냐에 따라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은 무한하다. 보은적 상호작용은 스승과 제자라는 암묵적인 관계에서 그리고 스승이란 존재를 크게 존대하는 한국적 교육문화에서 기대해 볼 수 있는 순기능적 상호작용 유형이라 볼 수 있다. 학생은 목표한 학업을 성공적으로 성취해 가야만 하고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가지고 성숙된 인격체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1]. 이를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한 행위동기이다. 행위동기가 명확하고 분명한 목표점을 가지고 있을 때 긍정적인 행위결과가 나타나게 되어있다[25]. 이를 위한 행위동기의 끈은 교육을 담당하는 주체인 교수자이며 학생에게 보여주는 애정과 관심의 정서적 지지는 학생의 잠재력과 자아성장을 유발시키는 촉매제임을 증명해 보인 유형이 보은적 상호작용 유형이라 볼 수 있다.

5. 결론 및 제언

대학에서 정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학생상담이 어

떻게 학생의 내적 성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교수학
 생간 상호작용 양상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이를
 행위주체자와 동기유발요인 그리고 행위결과 차원으로
 분류하여 세가지 상호작용 유형을 도출하였다.

교수자의 학생에 대한 관심과 학생의 참여도가 높은
 주도적 상호작용 유형은 화자의 이야기 구조 속 ‘나’라는
 존재의 확실한 각인으로 강조되었다.

두 번째 피상적 상호작용 유형에서 교수자는 학생의
 발전을 위한 촉진자로서의 역할이 미약하였으며 학생은
 성공적 학업성취를 위한 적극성이 부족한 단면을 나타내
 고 있다. 마지막 보은적 상호작용 유형에서는 모든 학생
 은 동기부여 정도에 따라 무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존재이며, 교수학생 간 상호작용이 왜 필요 한지에
 대한 답을 제시해 주고 있는 유형이라 볼 수 있다.

교수자의 학생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은 학생의 성공적
 인 대학생활 적응 및 학업성취 뿐만 아니라 대학 경쟁력
 을 강화시키는 작동 기제임을 재확인해 볼 수 있는 결과
 이다. 따라서 대학은 교수와 학생 간 상호작용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끊임없이 모색해 봐야하며, 원활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개선 방안이 무엇인
 지 환류체계를 통한 지속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비록
 본 연구는 특정지역 특정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
 는 제한점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이야기는
 보편적으로 공감될 수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교육기
 관별 특성에 맞는 교수-학생 간 상호작용 기회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주어져야 하며 그에 대
 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References

- [1] H.R. Kim, "A study on developmental factors influencing college adjustment-focused on autonomy, social connectedness and career self efficacy", *Journal of School Social Work*, Vol.24, pp.85-105, 2013.
- [2] J. Park, S. Park, "Influence of college adjustment and social support on career development level of college students who majors in health or social welfare", *Korean J Clin Lab Sci*, Vol.49, No. 2, pp. 180-186, 2017.
DOI: <http://doi.org/10.15324/kicls.2017.49.2.180>
- [3] M. H. Han, "Factors affecting college adation and academic achievement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Health informatics and Statistics*, Vol.42, No.1, pp.36-43, 2017.
DOI: <http://doi.org/10.21032/ihis.2017.1.36>
- [4] S. Kim, J. Ko, "The effects of individual and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on student-faculty interaction",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Vol.54, No.4, pp.263-293, 2016.
- [5] E. Pascarella, P. Terenzini, "How college affects students(vol.2): A third decade of research" San Francisco: Jossey-Bass, 2005.
- [6] J. Hong, S. Bae, "The relationship between faculty-student interaction and institutional commitment of students",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Vol.33, No.3, pp. 351-379, 2015.
- [7] T. Campbell, D. Campbell, "Faculty/student mentor program: Effects on academic performance and retention", *Research in Higher Education*, Vol.38, No.6, pp. 727-742, 1997.
- [8] V. Tinto, "Leaving college: Rethinking the causes and cures of student attrition", Chicago: university Press, 1993.
- [9] J. Do, "The effect of major satisfaction and faculty-student interaction of university students majoring Dance on their school life", *Official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ance Science*, Vol.34, No.4, pp.69-82, 2017.
- [10] S.Bae, H. Jang, H. S, "The study on the undergraduate school education and analysis", *KNIGE RR-2013*:120-566, 2013
- [11] D. Kuh, S. Hu, "The effects of student-faculty interaction in the 1990s", *Review of Higher Education*, Vol.24, No.3, pp.309-332, 2001.
- [12] J.Choi, H. Shin, " The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professor-student interactions and performance outcomes in the university", *Korean Educational Research*, Vol.37, No.2, pp.132-154, 2010.
- [13] H. Rhu, J.Ko, H. Nam, " A study on the analysis of the factors to communication and comprehensive thinking skills of university school students", *Korean Educational Administration Research*, Vol.29, No.4, pp.319-337, 2011
- [14] B. Choi, H. Yu, H. Byun, "The influences of faculty perception of belonging college on their interaction with students". *The Korean Educational Review*, Vol.22, No.1, pp.53-76, 2016.
- [15] S. D. Nam, " Faculty-student interaction" In KEDRTI Report(VII), RR 2019-9: 170-276, 2019
- [16] H. Seon, C. Ha, "The development of the college adjustment inventory at the middle level college of a provincial University", *CNU Journal of Educational studies*, Vol.34, No.1, pp.209-226, 2013.
- [17] Academy Information[internet]. Available From: <https://www.academyinfo.go.kr/search/search.do> (Accessed Aug. 02, 2020)
- [18] B. Yih, M. Yi, "The lifestories of Elderly Korean Women with Urinary Incontinence: A narrative Study

Approach”, *J Korean Acad Nurs*, Vol.39, No.2, pp.237-248, 2009.
DOI: <http://doi.org/10.4040/ikan.2009.39.2.237>

- [19] J .I. Lee, “*Narrative style and marital life: Thelife stories of korean wome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2004
- [20] H. A. Maxwell. “*Qualitative research design: An interactive approach*”, p.69-76, California. Sage. 1996.
- [21] M. Sandelowski. “The problem of rigor in qualitative research”, *American Nursing Science*, Vol.8, No.3, pp.27-37, 1986.
- [22] K. Burke, “*Introduction: The five key terms of dramatism*. In B. Kenneth(Ed.), *A grammar of movies(pp.1-2)*”, New York, NY: Prentice-Hall, 1945
- [23] N. R. Goldberger., J. M. Tarule., B. M. Clinchy, M. F. Belenky, “*Knowledge, difference, and power: Essays inspired by women’s way of knowing*”, NewYork, NY: Basic Book: A Division of Harper Collins, 1986.
- [24] H. C. Yong, K. Y, Hwang, “Process of consciousness and counselling psychological paradigm-Transpersonal psychological review”, *Korean Journal of East West Science*, Vol.7, pp.27-42, 2004.
- [25] D. E. Han. “The trends of intrinsic motivation and its perspectives”, *Studies in Social Psychology*, Vol.2, pp.54-93, 1984.

이 봉 숙(Bongsook Yih)

[정회원]



- 2002년 5월 : LaTrobe Uni. Master of Clinical Nsg(간호학 석사)
- 2007년 8월 :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박사)
- 2009년 9월 ~ 현재 : 세한대학교 부교수

<관심분야>

사회심리간호, Qualitative research